



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7일 월요일 음 4월 27일 (4월)

기상정보

대체로 맑음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6-19°C, 낮 최고기온은 26-28°C로 전망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0% precipitation probability for all categories.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05:24) and sunset (03:24).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주의, 매우 높음

Table with 3 columns: 주간예보, 구름 많음, 온도. Rows show daily forecasts for '내일' and '모레'.

Table with 4 columns: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Rows show air quality levels.

월드뉴스

승부조작 음모 주동자 징역 1972년 선고

터키 축구 슈퍼리그 사건

10년 전 세계 축구 팬을 놀라게 한 '터키 슈퍼리그 승부조작' 사건을 꾸며낸 전직 경찰관과 언론사 대표가 100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알리 코츠 페네르바흐체 회장. 연합뉴스

터키 이스탄불 법원은 4일(현지시간) 터키 슈퍼리그(1부리그)의 명문 구단인 페네르바흐체가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음모를 꾸민 혐의로 기소된 전 이스탄불 경찰청 조직범죄국장 나즈미 아르드초에게 징역 1972년 10월을 선고했다.

받았다. 당시 페네르바흐체는 2위 트라브존 스포르에 골독살차로 앞서며 극적으로 우승을 차지했으나, 승부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우승이 박탈됐으며 준우승을 한 트라브존스포르가 대신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32강에 진출했다.

아르드초와 공모해 페네르바흐체 승부 조작 사건을 꾸며낸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대표 히다에트 카라자에게는 징역 1406년이 선고됐다.

또 아지즈 이을드름 페네르바흐체 전 구단주를 비롯해 터키 축구계의 거물 30여명이 구속됐으며, 이 여파로 2011~2012시즌 슈퍼리그 개막이 연기되기도 했다.

터키 검찰은 2010~2011시즌 페네르바흐체가 리그 우승을 위해 승부조작을 저질렀다는 음모를 퍼뜨린 혐의로 이들을 비롯해 88명의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으며,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페네르바흐체는 2위 트라브존 스포르에 골독살차로 앞서며 극적으로 우승을 차지했으나, 승부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우승이 박탈됐으며 준우승을 한 트라브존스포르가 대신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32강에 진출했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백록담



백 금 탁

제2사회부장 겸 서귀포지사장

서귀포시가 2019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1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았다.

문화도시사업은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문화도시 조성에 참여, 스스로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해 고유의 문화발전을 이끌어간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는 105개 마을이 있다. 이곳에 많은 공을 들였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이종섭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작가의 산책길

‘문화도시’ 서귀포시를 위한 제언

조성, 문화예술디자인 시장 운영, 옛 관광공간 재생을 통한 문화예술 공간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나섰다.

이러한 노력은 25억7100만원을 들여 '노지(露地)문화 씨앗' '창의문화 농부' '미래문화 텃밭' 등의 사업을 벌이며 시민문화 활성화와 마을문화공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시도했다.

시는 105개 마을이 있다. 이곳에 많은 공을 들였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이종섭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작가의 산책길

제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문화도시사업은 지역의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마을만들기와도 연관 지을 수 있다.

문화도시사업은 지역의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마을만들기와도 연관 지을 수 있다. 지역주민의 전문성을 키워 문화해설사로 양성한다면 고향을 지키는 일과 일자리 창출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여기에 최근 개장한 '하영올레'도 문화도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도심에 걷는 올레꾼들에게 지역의 숨겨진 이야기기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도보투어의 매력은 배가 될 수 있다.

시행할 수 있는 시책들은 많다. 시는 '판'만 깔면 된다. 플라마켓을 열고, 예술가들이 야외무대에서 공연하고, 작품 전시 및 판매하고, 아울러 아이들이 신나는 출판도 있으면 좋겠다.

여기에 이종섭미술관을 중심으로 여름 관광성수기에 이종섭미술관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이종섭거리 300m에 대해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난장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제안한다.

열린마당

혹시 세금 체납액은 없으신가요?



강창웅

서귀포시 대천동장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등록, 명단 공개,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로서 세금은 재산의 손실을 주고, 세금을 낸 만큼 직접 또는 상응하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되도록 납부를 회피하고 싶고, 납부 금액도 적게 내고 싶은 게 당연한 심리이기도 하다.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본다. 세금은 국가가 사회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고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비용을 마련

‘마음방역’ 서귀포시에서 시작해 보세요



이현정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코로나가 발생하고 1년 5개월이 지났고 있다. 개인인 2m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친목 모임 자제 등 지속되는 방역 수칙 강화로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겪으며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넘어 분노를 느끼는 코로나 레드, 블랙으로 진화되고 있다고 한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마음이 아프면 치유를 해야 한다.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 문화생활을 추천하고 싶다.

서귀포시는 문화가 흐르는 예술도시이다. 걷는 곳마다 시선을 두는 곳마다 어느 곳이나 문화다. 원도심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이종섭 작가 중심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

을 여는 문화예술디자인 시장에서 다양한 문화 상품을 구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올해는 안전한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온택트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해 온오프라인 양방향 전시 관람환경 조성하는 등 본격적인 비대면 관광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서귀포를 대표하는 작가 변시지·이종섭·현중화의 작품 및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징하는 '스마트 미술관 구축사업'이 최종 완료되면 다양한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즐길 수 있다.

코로나로 집콕 생활이 길어지는 요즘, 약기를 배워보기를 추천한다. 서귀포시는 올해 처음으로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현·타악기를 대여할 수 있는 '악기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악기 사용에 대한 강습을 받고 싶다면 '시민 음악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문화예술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회오리악을 표현하는 궁극의 수단이자 치유의 방법이었다.

다양한 문화생활로 코로나 블루·레드·블랙에 극복하고 일상과 생활 터전에서 문화예술이 생활화 되는 문화예술도시 서귀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Large advertisement for Cocoly fertilizer, featuring product benefits, contact information, and a QR code for more details.